

104세 할아버지·19세 고교생 등 투표 열기 뜨거웠다

광주·전남 총선 투표 이모저모

새벽부터 투표장 발길 이어져
양금덕 할머니 휠체어 타고 한 표
6살 아들 대동 투표현장 보여주고
목발 짚고 언덕길 올라 한 표 행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광주·전남 투표소 1164곳에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지역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일부 투표소 앞은 투표시작 전인 이른 새벽부터 유권자들이 물려 줄까지 만들어졌고, 귀화한 고려인부터 고령 투표자까지 내 손으로 일꾼을 뽑기 위해 나섰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도 투표=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5)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광주시 서구 상촌종합사회복지관 상무 2동 2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양 할머니는 이날 좋지 않은 건강에도 요양병원에서 외출 신청을 하고 셋째 아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양 할머니는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명 한명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뽑혔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고령 유권자도 새벽부터 권리행사나사 = 투표소의 문이 열리는 새벽 6시부터 투표소 앞은 유권자들로 북적였다.

104세 고령의 이영조 할아버지는 오전 6시 투표소 문이 열리자마자 아내와 남구 광주선명학교 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광주시 서구 상촌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투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월1동 3투표소를 찾았다.

평생 한번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 할아버지는 "직접 걸어서 투표할 수 있음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웃어보였다.

◇가족·직장 단위로 나서기도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신가동 3투표소에서 권리를 행사한 윤원석(45)씨는 아들 금강(6)군에게 민주주의를 몸소 보여줬다. 윤군은 투표장의 엄숙한 분위기가 어색한 듯 아버지를 찾아가 투표함에 표를 넣는 순간까지 관심있게 지켜봤다.

윤씨는 "언젠가 아이도 커서 투표를 할 텐데, 미리 투표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 함께 왔다"고 했다.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AI업체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이호민(39)·정승혁(31)씨는 함께 신가동 3투표소를 찾았다. 이들은 "오늘 보여준 한 표로 권력의 균형이 맞춰지고 합리적인 나라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원했다.

◇고려인 귀화인 첫 권리행사 =광주 고려인마을 정착 고려인 동포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최 빅토리아(여·24)씨는 처음으로 국민의 권리의 하나인 투표권을 행사했다.

지난 2020년 카자흐스탄을 떠나 광주고려인마을에 정착한 최씨는 광주 고려인마을 10여명의 유권자 중 유일한 순수 고려인이다.

독립운동가 박노순 선생의 후손인 최씨는 지난 2022년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열린 '독립유공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0일 오전 9시 광주시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3 학생들과 함께 투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한 고교생 유권자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날 투표를 마친 최씨는 "국내 귀화 고려인동포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픈 몸 이끌고 투표소행=월남전에 참전해 왼쪽 다리를 잃은 이진환(81)씨는 의족을 찬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광주시 북구 동운초 운암2동 1투표소를 찾았다.

이씨는 "당적을 떠나 인물을 보고 뽑았다. 이번에 뽑히는 인물이 앞으로의 광주를, 북구를 이끌어갈 텐데 더 행복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환으로 홀로 걷기 불편한 김남진(여·83)씨는

양 손에 목발을 짚고 힘겹게 남구 주월동 광주선명학교 언덕을 올랐다. 행정복지센터 노래교실에 가기 전 투표하러 왔다는 김씨는 "다리는 아프지만 한 표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투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세상이 아직 모두 깨어나지 않은 오전 5시 50분 박정호(73)씨는 서둘러 집에서 나와 투표소를 향했다. 박씨는 "아침이 더 바빠졌지만 투표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렀다"며 출근전 투표소를 찾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는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장애인 손발 되어준 투표 보조인과 새빛콜 기사들 '뿌듯'

광주시 투표도움차량 20대 배치 교통약자들 소중한 권리 행사

선택의 날인 10일 광주지역 교통약자들은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콜택시(새빛콜)를 이용하거나 투표 보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광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이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투표도움차량 20대를 배치했다. 투표도움차량은 선거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이동 업무를 맡고 있는 박기웅(62)씨는 이날 오전 신창동 제2투표소로 데려다준 40대 장애인 남성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박씨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몰라 한 번도 투표를 못했다고 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서 한 어르신이 투표소에 가기 위해 새빛콜을 이용하고 있다.

물을 흘리는 장애인을 보니 같이 눈물이 나더라"면서 "새삼스럽게 투표를 얼마나 중요한 국민의 권리인지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한 고령 어르신은 자택에

서 200여m 거리에 있는 투표소가 높은 언덕에 있는 탓에 새빛콜의 도움을 받았다.

새빛콜 운전기사 한상돈(45)씨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인도 경계석, 언덕, 계단 등이 큰 장애물"이라며 "새빛콜은 단순 택시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돕는 공공복지서비스"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등 혼자 기표가 힘든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배치된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했다. 광주시 남구 주월2동 제2투표소의 투표관리관 정우성(59)씨는 이날 오후 3시까지 7명의 주민이 보조자와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씨는 "오전에 시설에서 발달장애인 여성 세 분이 복지사와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고 갔다"며 "몸이 불편해도 꼭 투표를 해야한다며 오시는 분들을 보면 몽롱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웃어보였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

투표 용지 찢고 중복투표 논란 등 소동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0일 광주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 용지 찢거나, '중복 투표자' 논란이 제기되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광주시 동구,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2동 제1투표소에서 50대 유권자 A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80대 어머니와 함께 투표소에 온 A씨는 어머니가 기표소에서 "어떻게 해야하냐"며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기표소로 들어갔다.

이를 지켜보던 선거사무원이 "제3자가 기표 내용을 본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하자,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투표소를 빠져나왔다.

선관위는 A씨의 투표 용지를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해 무효 처리하는 한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오전 7시 20분께 광산구 수완동 제3투표소에서

는 개인 유튜버가 투표소 앞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유권자들을 촬영했다가 선관위에 신고당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위법 사항은 없었으나, 유권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카메라를 치워 줄 것을 요청했다.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는 70대 여성 B씨가 투표한 적이 없음에도 '중복 투표자'로 분류되는 등 선관위의 투표관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80대 여성 C씨가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지난달 24일 경로당에서 주운 B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낮 12시 20분께는 계림2동 제1투표소에서 D씨가 선거 사무원에게 "투표 용지에 바르게 기표했는지 확인해달라"며 투표용지를 펼쳐 보여줬다가 무효표 처리를 당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피어나다 남원

춘향, COLOR 愛 반하다!

제94회 남원 춘향제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